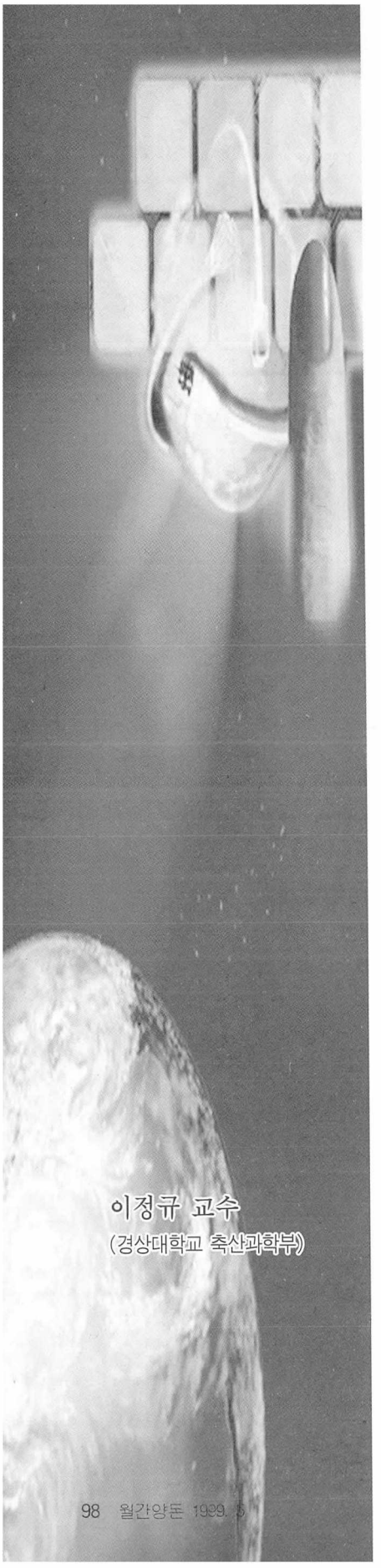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리나 대학이 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엑스텐션 서비스의 양돈뉴스 1999년 4월호, 제22권 2호 (http://mark.asci.ncsu.edu/Swine_News/1999/sn_v2202.htm)에 게재된 내용중 성공적인 모돈관리를 위한 단계별 관리 포인트를 정리한 것이 있어 번역하였다.

성공적인 모돈관리를 위한 단계별 포인트

모돈 관리에 있어 종부부터 임신기간은 위험한 기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기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종돈관리에 있어 발정발견, 종부 및 임신관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임신기간 동안의 모돈 관리란 "스트레스 절감" 관리라고 보면 된다. 생산될 자돈의 43%는 임신기간 중에 사라지며, 생산될 자돈의 1/3은 임신 후 30일 이내에 사라진다. <그림1>에는 이러한 위험한 기간을 정리하였으며, 각 기간별로 생물학적 및 관리적인 면에서의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였으니, 이 기간중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유부터 발정까지

이 기간 중에는 개체간의 싸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고온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게 되며, 모돈은 분만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재귀발정일수가 늘어지게 할 수 있으며 배란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료섭취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해주어야 한다.

종부당일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은 종부 당일에 이루어진다. 성공적으로

이정규 교수
(경상대학교 축산과학부)

수정이 이루어진 난자의 수가 산자수의 상한치를 결정하게 된다. 모돈에나 웅돈에 대한 고온스트레스는 수정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종부 1일부터 12일 사이

이 기간중의 수정란들은 자궁과 난관에 떠있는 상태이며, 고온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이 기간중에는 고온을 피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단계가 되면 수정란들의 민감도가 다소 낮아지므로 그룹으로 사육되고 있는 모돈들은 이 시기에 재편성하거나 스톨로 이동시켜야 한다. 반드시 돈군의 크기는 지침에 따라야 하며, 모돈의 성질과 과도한 반응으로 재편성된 그룹에서 싸움을 하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돈들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해서는 않된다.

종부 11일부터 14일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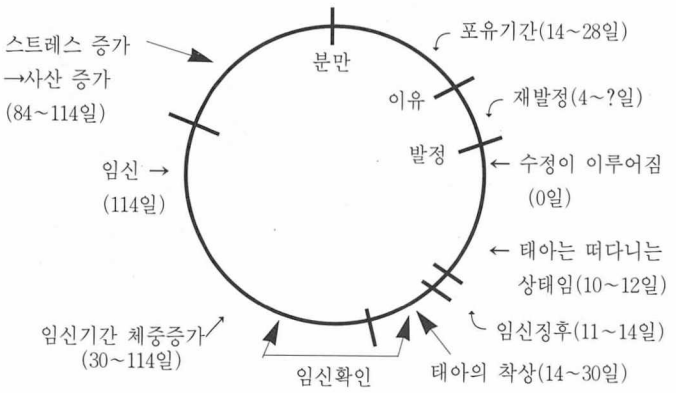
임신의 징후가 나타나고, 임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분비된다.

종부 14일부터 30일 사이

태아의 착상이 일어난다. 돼지에 있어 태아 착상은 느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충분히 부착되어 있지 못하면 임신유지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태아사망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태아를 태반에 잘 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임신확인을 제외하고는 모돈을 움직이게 하거나, 재편성 또는 불필요한 처치를 삼가해야 한다.

종부 21일부터 70일 사이

〈그림1〉 모돈의 성공적인 발정 · 임신을 위한 위험기간



이 시기에는 모돈의 비생산일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초음파 장치를 이용하여 임신상태를 평가한다.

종부 30일부터 114일 사이

임신돈 사양프로그램에는 모돈의 신체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 뿐만 아니라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태아의 발육을 돕고, 관련 자궁의 조직, 유선조직 및 모돈의 체중이 적절히 증가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성공적으로 임신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임신기간 중에 신체의 에너지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분만할때까지 바람직한 에너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양수준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임신기간 중의 바람직한 증체량과 바디컨디션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료 급여량을 가끔씩 조절해 주어야 한다.

종부 84일부터 114일 사이

임신 마지막 30일 사이에 모돈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사산자돈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양돈